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이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7年 (檀紀 4320年) 2月 28日 第 120號 [1]

발행인 鄭申崔 在益在哲
편집인 崔在哲 炫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종구 필동 3 가 26
전화 : 267-8568
274-7449

우편번호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오직 義氣에 찬 젊은 모습



'86학년도 학위수여식 거행

母校의 198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경주캠퍼스 27일) 오전 11시에 모교 대운동장에서 거행되어 학사 3천 1백 8명(경주 9백45명포함), 석사 2백58명, 박사 26명 등 총 3천 3백92명의 새동문이 탄생하였다.

鄭在哲 본회회장, 李智冠 모교총장, 吳綠圓 재단이사장을 비롯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鄭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東國愛와 긍지를 갖고 높은 이상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左)은 지난 7일 본회 사무국 이전과 함께 도입한 컴퓨터로 7만 동국인의 자료를 입력, 사무자동화와 동문들간의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중이다. [관련기사 3면]

濁世의 연꽃으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 아니었던가

기울어 가는 나라의 한 줄기 빛으로
순수한 민족의 정재(淨財)를 모아
「교육구국」의 배움터 이루었나니—

명진학교의 그날로부터 80년!
1906년 개교이래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을 지표삼아 우리 민족 근대사
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역사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학으로 사명을
다해온 동국대학교!

여기,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고자
했던 동국80년의 생생한 기록이 모아졌습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교 8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반치를 새 화이하는 작업은
단순한 우리 대학만의 감격이나 축제가 아니라 모든 불교계,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감격이며 기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東大80年史의 어제와 오늘을 회고함에 있어 때로는
행동과 흥분으로, 때로는 눈물과 자애로, 때로는 이성과 양심으로 점철되어온
수많은 현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본 東國大學校 80년」을
편집, 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행사 中에서)



영옥의 생생한 모습—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발간!

• 12절판, 146페이지, 고급양장본
• 구입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전화 267-8577, 267-8131~9호 21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동문 3천3백92명 탄생

지난 25일 母校 대운동장에서

198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경주 27일) 오전 11시母校 대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李智冠총장과 吳仁甲이사장, 鄭在哲동창회장을 비롯,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李총장은『암십과 짖의각을 바탕으로人類의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후회는 삶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鄭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 여러분은 동국애와 긍지를 갖고 높은 이상을 실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은 교내외 문부관(체육관)에서 거행되어 9·45형의 학사를 배출하고 평점 4·40의 김하경(법경대·행정학과) 군이 열예의 전제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본교수석에는 평점 4·25의 한영희(영문학) 양이 차지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자는 학사 3천 1백 8명(경주포함) 석사 2백 58명, 박사 26명 등 총 3천 3백 92명이다.

각 단내별 수석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김은주(불교대·선학) ▲임광호(문과대·일문) ▲박상진(이과대·통계) ▲강상근(법정대·법학) ▲장동현(경상대·무역) ▲전희(농과대·농학) ▲이시룡(공과대·토공) ▲김은미(사법대·국사교) ▲박종화(이부대·전산) ▲정명숙(군리대·일문) ▲손석자(법경대·법학)

▲손광학(한의대·한의본) 이밖에 공로상 수상자는 본교 37명, 경주캠퍼스 23명 등 모두 60명으로 밝혀졌다.

구농東友會 신년하례식

8일 權오갑동 문집서

救農東友會(회장=劉鍾熙·65농경, 한일종합상사 이사) 신년하례 및 87년 시무식이 지난 8일 鄭회장을 비롯한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權오갑동 문집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86년도 결



▲鄭회장이 이준호君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산 및 87년도 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회의가 끝난 후 여흥시

간에서는 윷놀이 등을 진행, 87년 동회의 결속을 다졌다.

理事會 및 사무국 현판식

3월 20일 오후 2시 사무국서

본회정기이사회를 비롯한 사무국 이전 현판식 및 자축연이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본회사무국 회의실 및 전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87년 들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86년도 결산 및 87년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사회가 끝난 오후 3시부터는 사무국 이전기념 현판식 및 자축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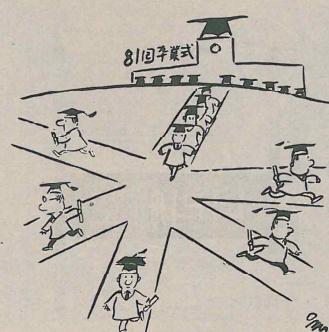
청주 동문화 임시총회
24일 시내 정원가든서

本會 충북 청주동문화(회장=朴鍾浩·60政治) 임시총회가 지난 24일 청주시내 「정원가든」에서 鄭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87년도

東友漫評

鄭雲耕



各界로 뻗는 東國의 人才

신속한 정보처리 가능

7월, 자료입력 마감

本會 사무국에서는 지난 2월 7일 종로 성화빌딩으로 이전과 동시에 7만동국인의 완벽한 정리와 보다 빠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도입한 컴퓨터는 모델형이 MBH-20 35형으로 입력신호는 신호분리방식(TTL) 16 Gray Color 표현이며 12인치 90°회전(310KG B31)의 브라운관을 장착한 소비전력 35와트의 중량은 7.8kg이다.

同时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7만동국인은 기존의 수동식 정보처리에서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 시스템으로 된 통문소식을 얻을 수 있으

며 본회사무국에서도 회보마지지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문 및 안내서를 컴퓨터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입후 현재까지 컴퓨터에 본회 일원진을 비롯한 7만동국인들의 주소 및 직장, 출입업도 등의 자료를 입력 중이며 자료입력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7만동국인과 함께 균형 및 기타정보가 현재 보다 한결 신속히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상상에 변화사항이 있는 동문은 본회사무국에 연락, 자료 입력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E L 733-3991~3。

보고 「87사업계획수립」 「임원개선」 등이 논의되었으며 임원개선에서는 신임총무로 李潤根(81·경행·교과 고시학사부사감시)을 결정하였다.

東女會 신임회원 환영식
계속적인 흥보등 논의

東女會(회장=安蘭桂 54·국문 사진) 신임총무 회원 환영회가 지난 2월 18일 모교 여학생 생활관에서 거행되었다.

安회장을 비롯해 金貞愛 前회장, 朴桂山 동문등 임원진과 86년 87년 총학생회 여학생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환영회에서는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으며 동녀회 활성화를 위한 계속적인 홍보가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여름방학에 동녀회 정기총회를 갖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일정은 아직 알리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부 임원 개편 회장에 하영태로

本會 대구지부(회장=全泰成·57경제 대영직물대표) 임원진이 구립 18일 동국인의 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고문: 朴鍾熙(52경계 경북 광유회 회장) 김정석(상주종합고교 교장) 최정석(효성여대 교수) 전성래(대영직물 공업사 대표) 崔義遠(49文學 삼길식품 대리점)

▲회장=하영태(유신무역(주) 대표)

▲부회장=朴達植(62정치 대구여대생(주) 대표) 朴吉祚(65 농경 삼천여대 대표) 오남수(만리장성 대표) 李鍾基(71경영 고려종합건설(주) 대표) 이규현(강생한의원, 경주한의과 1회)

▲감사=具教眞(64법 복무경찰 경무과) 허기경(신우상호 신금고) 삼부이사

▲총무=金相俊(70정의 대학 당시생 대표) 朴東潤(69상학 남성당대표) 최길우(국제상사 대표)

鄭회장 경주지부 간담회

지난 2월 27일 경주궁전호텔서



▲지난 2월 27일 경주에서의 간담회 장면

「鄭在哲, 본회회장과의 경주지부간담회」가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주시내 궁전호텔 커피숍에서 鄭회장을 비롯 선진규, 김동정 본회부회장 남기일 본회감사 신익현 사무국장등의 본회임원진과 단체한 동녀회회장 및 경주지부(회장= 박광도 65불교, 포함지부(회장= 김현민 60영문), 대구지부(회장= 하영태) 등 참회원 10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

다. 鄭회장 취임후 경주지부 첫 방문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부 일원과 본회 임원들과의 상견례, 회장의 경주방문에 감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 내용으로는 총동창회의 계속적인 발전과 경주지부동창회의 활성화 등의 문제는 중점

논의되었는데 鄭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앞으로 경주동창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경주동창회를 충동창회의 직할 동창회로 승격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주시장과 참석 본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宣辰圭
<本會 상임부회장>

開校 81周年을 맞이한 東國은 그간 7만여 동문을 배출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人材輩출이며 資產의 사회환원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언제나 만나야하고 소식을 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소동문이 동참해야

로 알아야할 귀한 동문들이 출입과 동시에 소식이 영어 끊어지는 아쉬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 동창회는 16년전 1971년 제7대~10대 檀誠九회 남상이 10년간 흐르진 짐작을 재정비 강화하여 회원명부와 회보간행 및 회원유대강화의 인적교류를 확실히 해놓았었다. 이어서 現회장이신 제11대 ~13대 鄭在哲회장께서 1981년

참여가 어느때보다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발전하는데는 시기와 환경과 인적 구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속 우리 동창회는 바로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춘 好期이란 오랜동안 동문들의 숙원이었지만 동창회관 건립운동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東國의 堂을 열세울 것이다 확신해 본다.

魚允沼
<東經會 회장>

동창회관 건립이란 동국인으로서 가장 가슴벅찬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실이 개인인 동문들에게 보다 현실감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에 따른 홍보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총동창회는 막연히 기금모금만을 주장, 몇몇 특정인에게 많은 기부금을 호소하는 방향보다는 부

지 확보까지는 안되더라도 설계·건축비 및 기타 내부시설에 관한 대략적인 예산 등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다음 이를 텁위고집이 흥보플랫 등으로 널리 알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 기금을 모금하도록 하여야 각 동문들이 신시일반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의미와 함께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것으로 본다.

또한 각 단위모임은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실시한다면 그하는 도급방법상의 단위별 참여가 시급한 당면문제이나, 따라서 총동창회는 단위모임동문들간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전을 조성, 이를 기반으로 7만 동국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른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이다.

『새 숨은 새부대에』라는 말과도 같이 회관을 중심기반으로 더욱 공고해진 東國愛의 모습을 느낄수게 되는 날이 뜸시도 기다려진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다양한 홍보로 뒷받침을

本會 사무국 이전기념 동양화 展

상원회에서는 本會 사무국 이전기념 및 동창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第1회 동양화전을 同會 회원 70여명의 작품, 50여점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일 시 : '87년 3월 21일 오후 2시~(상설전시)

장 소 : 本會 사무국 특설판

전시작품 : 50여점



申鉉熙 회장



池月光 부회장



李官成 총무



朴盛煥 간사



象院會는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미술학과 동문들의 모임으로 한 국화 전공인 융합으로 창작활동 위주로 理論과 실제의 교류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신을 기워가는 한편 모교후배들에게 도 부단한 지원을 행하는 東國美術의 선두를 치닫고 있는 모임이다.

○ 7만 동국인의 의원인의 역원인 동창회관 건립이 누워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월... ○

- 본회사무국 이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동창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그간 많은... ○
-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금지원 및 본회의 긴축운영으로 현재까지 2억여원을... ○
- 마련하고 명실공히 東大동창회의 일선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나. 이... ○
- 에 本會에서는 동문들의 요청이 될 동창회관 건립에 관하여 각... ○
- 계 동문들의 제언을 들어본다.

이후 현재까지 장학기금확보, 16년간 모교에 신세를 지던 사무실 이전, 동국문화상제점회 원관리용 컴퓨터설치에 따른合理的管理등 内實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몇몇 뜻있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무실구입 보증금 2억 원을 기본금으로 하여 鄭회장 님 發議하여 회관전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각지부·지회 심지어 해외동문들까지 호응도가 강렬하여 그 의욕과



동창회관 건립이란 평시 중 대회도 명실상부한 東國人의 과제이므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완성을 보아야 할 일이 있다.

그동안 7만동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숨한 활약상을 보임으로써 80여년 星霜의 모교역사와 더불어 東國인의 공지를 빛내온 것 또한 사실이나 그 기점이 될 중심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동국역사의 새 场 여는

회관건립案에 적극 지지

일이었다. 그런데 마침 鄭회장님의 발언과 뜻있는 동문들의 협조로 회관건립을 구체적으로 논의, 그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으니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이 취지를 대魄 지지하는 바이다.

물론 예산규모가 아직은 불확실한 관계로 자제히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동창회·활동에 필요로 부녀시설(사무실, 회의·회보제작실 등)이

준다든가하는 案도 고려—그 이익금을 母校나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쓰다듬어 체육부 활동을 뛰어넘기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새로운 東國의 앞길을 밝히는 주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는 적극적인 협조로써 어느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동문모임의 母胎를 마련해야겠다.

申寬浩
<東大新聞 편집국장·前본 회총무>

우리에게 있어 동창회관 건립은 母校의 81년 역사와 7만동문의 저력이 있으니만큼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싶다. 다만 우리에겐 새 벼는 약속되어 있는데 어들이 너무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뿐이다. 동창회관 저립에 대하여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사무국에 근무한 당시 인 70년대 후반 신년사업계획

에서도 예외없이 안건으로 등장되었으나 이제껏 그 결실이 없었음에 아쉬움과 함께 하루빨리 회관건립이 세워졌으면하는 바램이다. 우선 회관이 건립된다면 모교의 역사와 전통에 상응한다는 측면과 함께 전 회원의 동참을 통한 동문의식 고취를 기대할 수 있느라라고 본다. 또 실질적인 면에서는 임대수입 등을 통한 재정자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급 단위모임장으로도 활용, 동창회활성화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서 회관내에 동문을 위한 도서실이나 동국관계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 같은 것도 마련했으면하는 성급한 주문도 해본다. 어찌거나 급한 일은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한 「회관건립위원회」의 구성이 아닌가 싶다. 이 회관건립이라는 조용한 기대에 가슴이 부풀고 있음은 바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새벽의 날 기대

하루빨리 약속된 새벽의 날 기대



會館建立 기금 마련 서예전 계획 중 분기별 모임마다回甲 맞은 동문「장수무대」도

고 李喜春동문을 초대회장에 선임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그후 81년10월에 있은 秋季 정기총회에서 崔載九동문의 제안으로 회의 명칭을 「惠東會」로 바꾸었으며, 85년12월 맘년회 겸 정기총회에서 池昌勳(52경제)동문을 2대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에 李培薰(52경제·京城비니루공업사대표)동문을 선임하면서 회활성화와 회원소재파악에 주력, 지금은 회원수가 1백20명에 이르고 있다.

池회장과 李부회장 두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출하추동 계절마다 회의에서 아유회 겸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임마다 40~50명씩이 참석하는 등 회원들 모두가 晚年の母慈愛를 바탕으로 친목과 단합면에서는 타

한다. 崔載九동문은 회원들의 작품과 소장품들을 모아 동창회 사무국을 떠나 전시회를 갖고 그 수익금 전부를 同窓會에 전기금으로 회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同會의 특징으로는 회원들 대부분이 회장을 전후한 나라마다 본가별 모임마다 회장을 맞은 회원들의 축하집자인 「장수 무대」를 열어 축하와 함께 여행을 통해 友情을 다지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동창회와 모

교에 대한 애착도 남달리 커서 지난 달 말朴應燁(51국문)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마식소재 천마농장 쉼터휴게소에서 있

은 맘년회에는 이에 맞춰 세동문이 同窓會에 정자를 지어 惠東會의 모임을 기리고 앞으로도 매년 이곳에서 모임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同會에서는 이 정자의 명칭을 「惠東亭」이라 이름짓고 吳麻根(49사학)동문의 글씨로 현판을 제작, 이날 현판식을 갖기도 했다.



李喜春초대회장



池昌勳현회장



李培薰부회장

을해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회장을 맞게되는 대선배들의 고임인 「惠東會」(회장=池昌勳·52경제·관홍건설부사장)

鄭在哲(52정치·정무장관) 본회 회장, 崔載九(52국문·국민당 부총재) 본회 명예회장, 文泰植(49진문·아주산업회장) 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 본회의 종주적 역할을 맡고 있는 대다수 동문들이 바로 「惠東會」



▲惠東會모임을 기리기위해朴應燁동문의 천마농장에지은「惠東亭」 현판식공식.

의 회원이기도 하다.

회의 명칭이 뜻하는 것과같이 49년도 전문부 졸업생들과 그후 모교가 동국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학부에 편입, 52년도에 학부를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옛친구들간에 다시모여 모교에 다지고 동기끼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뜻을 모으고 81년 9월30일 하이아트호텔 날산룸에서 李喜春(49사학·하이아트 호텔사장) 동문을 비롯, 鄭在哲(52정치·본회 회장) 金殷燮(52정치·본회고문) 與賢穆(49문화·교묘교수) 동문등 18명이 모여 밭기인회 및 초대이사회를 갖고 회의 명칭을 「惠東具樂部」로 하

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천안독립기념관 근처 獅岩山에 소재한 金相陵(60국문)동문의 능장에서 하계모임을 갖고 이자리에서 同會발전은 위한 기금으로 2백60만원의 기금을 모아, 회원수첩을 제작하고 회원의 경조사부초조를 하는 등 출발전과 단합을 퍼하는 한편, 모교 운동부가 결승전에 진출할 때면 응원수도 사들고 함께 응원을 기리고 하는 등 모교 후배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同會에서는 본회사업에 도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同窓會』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서예전을 계획중에 있다고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요긴

(단위: 만원) ▲송석구(62철학)=0 ▲나기연(69경행)=0 ▲이재환(71경제)=0

◇회장단분담금 ▲박선영(64불교)=0 ▲김경수(63법)=1 ▲김홍천(83경행)=0

▲우종식(52경제)=50 ▲권기종(64불교)=0 ▲배예민(72식품)=0 ▲이종만(80내원)=0

▲박완일(61불교)=0 ▲신동민(66상학)=0 ▲이상복(82철석)=0 ▲이철우(86전산)=0

◇常務理事會費 ▲김종상(68식품)=0 ▲성남훈(83행원)=0 ▲임동배(86경제)=1

▲황용운(54경제)=20 ▲김문환(64정치)=0 ▲윤경수(55영문)=0 ▲신현성(85내원)=0

▲박삼선(55법학)=0 ▲김복월(62정치)=0 ▲조경진(56정치)=0 ▲연경구(63법학)=0

▲남상룡(49문화)=0 ▲조소운(74경영)=0 ▲인태환(80행정)=0 ▲양수인(74체육)=0

▲김낙천(79법원)=0 ▲장연수(74교교)=0 ▲이근운(52정치)=0 ▲홍상우(48불교)=0

▲조승근(65상학)=0 ▲신충구(63경제)=0 ▲강병현(71상학)=0 ▲김성호(59법학)=0

◇理事會費 ▲년회費 ▲이정곤(59사회)=2 ▲박종철(74건축)=0

▲장상일(69상학)=5 ▲황성파(80원원)=1 ▲김주석(73불교)=0 ▲유승희(72경영)=1

▲마경자(53국문)=0 ▲임경식(61화학)=0 ▲조재분(72경영)=0

▲조석영(62국문)=0 ▲차광종(66법학)=0 ▲전경주(50)=2 ▲단체회비

▲최재희(80경영)=0 ▲정종상(86경영)=0 ▲김호일(61법학)=1 ▲임상여고등문화회(회장: 정탁진)=39

▲공지호(68농학)=0 ▲김명란(84원원)=0 ▲이색덕(49문화)=0

▲이경주(58경제)=0 ▲지용종(80건축)=0 ▲윤관봉(73국문)=1 ▲시카고동문회(회장: 김경우)=200\$

▲이상률(57법학)=0 ▲김명수(70행정)=0 ▲반성곤(72영문)=0 ▲과부회(209회)=

▲김관선(50불교)=0 ▲임영(74농학)=0 ▲김호영(60법학)=0 ▲부산지부(회장: 박동호)=30

▲남시혁(58정치)=0 ▲이경식(50)=0 ▲유호룡(73행정)=0 ▲한국산업은행동문회(회장: 정재현)=10

▲이정주(77경원)=0 ▲최희경(64경제)=0 ▲오정희(72경영)=0 ▲한국산업은행동문회(회장: 정재현)=10

▲정현필(79사회)=0 ▲이종의(48교교)=0 ▲한용희(85경영)=0 ▲농업진흥공사동문회(회장: 조승월)=15

▲유현복(48예전)=0 ▲문정석(71농경)=0 ▲권현만(84행원)=0 ▲이자화(67상학)=0

▲김정일(78경원)=0 ▲진정장(82원원)=0 ▲이자화(67상학)=0 ▲임종희(84경제)=0

▲이정규(60정치)=0 ▲송석용(74건축)=0 ▲이원재(63사학)=0 ▲이원재(63사학)=0

▲김수환(61경제)=0 ▲엄태화(74정의)=0 ▲최상준(74경경)=0 ▲광고료

▲이상진(62정치)=0 ▲이성복(65상학)=0 ▲손기원(64국문)=0 ▲최우현(82원원)=0 ▲동우회보 광고료=199만 2천 5백원

알 림
"종로에서 만납시다."

本會 사무국이 전

•이전일시 : 1987년 2월 7일(土)

•이전장소 :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이전전화번호

(代)733-3993 733-3991~3

*본회 사무국이 1987년 2월 7일 本會의發展과 동문상호 교류확대를 위해 시내의 중심으로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會長 鄭 在 哲

"서울프리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리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경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펼리하고
풀워드에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리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마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도 전화하여 주시면 예약이 맞추어
설정해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리자호텔을 불러주세요!

* 출장 서비스는 거기로우신 분은 위변한 시설을
갖춘 프리자호텔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 전화 771-2270 7245-7249

서울프리자호텔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明和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 이사 홍 평 우 (70 경영)

세무사 鄭 大 鎮 (63법학)

稅務 상담 · 기장대리

심사 · 심판 · 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국민당 부총재로 추대돼



崔載九 省議會副議長

崔載九 (52세·본회의원) 본회 명예회장이 지난 2월 23일

잠실교통회관에서 있은 국민당 정기전당대회에서 부총재로 추대되었다.

그동안 국민당 전당대회의장을 맡아오던 崔동운은 4선의 원으로, 경기대 교수, 대한건설협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몬드리움을 빙여 한국대표선수단장, 국회 경제위원회 등을 역임했으며, 「佛敎思想」지를 창간, 회장으로 있으면서 불교발전에도 이바지해 왔다.

경찰계 인사서 세同門 요직에

지난 2월 16일 있었던 치안본부 인사에서 李鍾國 (57연군·동문이 제 2조정관·차장)으로 荣進한 것을 비롯, 金鍾一 (58법학·동문이 정보 1부장으로, 楊相植 (72대입) 동문이 서울시경 제 4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로 옮겼다.

▲李鍾國 (57연군·본회이사) 동문은 경찰간부 11기생으로 81년에 경무관으로 승진되었으며 종로·용산경찰서장, 본부 감식계장, 외사과장을 거쳐 충남 도경찰으로 근무해 오다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중책을 맡게 된 것. 83년 대통령 표창, 85년 흥조근정훈장 ▲金鍾一 (58법학·본회이사) 동문은 국방대학원을 수료하고 83



李鍾國 동문



金鍾一 동문

년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청와대 민정담당관, 군위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시경, 경보과장 등을 거쳐 시경제 4부장으로 근무해 오다 이번에 본부정보 1부장으로 역임한 것. 83년 녹조근정훈장.

▲楊相植 (72대원) 동문은 관악서 수사과장과 기서 청안본부 정보 1과, 경남 학천서장 등을 거쳐 이번에 서울시경 제 4담당관으로 역임한 것.

두同門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李丙順 동문
南都冰 部門
李丙順 (50국군·본회이사) 동문과 南都冰 (52연군·동문이 지난 25일 있었던 경년 및 명예퇴직교원 표창에서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했다.

▲李東順은 母校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양학부장, 중앙도



李丙順 部門
南都冰 部門
李丙順 (50국군·본회이사) 동문과 南都冰 (52연군·동문이 지난 25일 있었던 경년 및 명예퇴직교원 표창에서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했다.

서관장, 교육대학원장동 국문화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최근까지 대학원장으로 학술연구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南都冰은 그동안 고교 국어교과 교수로 있으면서 종양도서관장, 사법대학장, 학생처장, 총무처장을 거쳐 최근 경주캠퍼스부총장등을 역임하면서 학교발전과 학술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국민훈장을 수상하였다.

▲洪淑子는 동문이 지난 25일 발족된 인

「錦江장학회」회장에 柳根昌 동문



柳根昌
(49문화·
한국 화약
그룹고문)
동문은 지
난 1월 충
남출신 각
계인사들

이 출연한 「錦江장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날 장학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모금하기도 한 「同門」 회장을 예상하면서, 「佛敎思想」지를 창간, 회장으로 있으면서 불교발전에도 이바지해 왔다.

이날 회장에 피선된柳根昌은 육군중장으로 예전에 국방부차관, 원호처장, 임광토건株 회장들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택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東線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東線체육회 회장으로 동창회 발전에 두

7일에는 새마을운동 중앙부분 대의원총회에서 4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金동문은 서울출신으로 모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도봉구 새마을지도자회 회장, 서울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합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關東大學 학장으로

白永哲 동문

白永哲
(62법학·
본회이사)
동문은 최근 關東大學 학장으로 취임했다.

白동문은 국무총리비서관, 국회의장 수석비서관, 모교 법정대 조교수를 거쳐 그동안 명지대 교수 및 同門적 학과로 재

접 차장에서 이문동지점 차장으로.

▲鄭彦時 (66법학)=동여의도 지점 차장에서 영동지점 차장으로.

▲金善在 (69법학·한일은행동 쟁의 총무)=종로 5가지점 차장에서 동여의도지점 차장으로.

▲金基洙 (71경제)=동장안 지점 차장에서 광화문지점 차장으로.

<농협>

▲沈甲植 (62 경제)=해운대 지점 차장으로.

▲李龍浩 (71 경제)=외창군 군립사업단장으로.

▲奇寅鍾 (73 경제)=전남연수원부교수로.

<母校원 인사>

▲朴在憲=免교생부 학생생활과장 부교수로 역경원 업무부장▲

柳基基=영주경기고교 사서과장·補中庸도서관 사서과장▲孫相吉=免교부처 교무 1계 주임

補 학생부 학생생활교사 서리▲尹範大=免 총무부 부교수 주임▲宋富子=免교부처 학적주임補中庸도서관 사서과장·免中庸교사 서리▲李哲數=免중

양도서관 사서과장서리▲金正七=免 기회조정실기획주임서리 부교영 대학원 교학주임서리▲李鍾錫=免교부처 교무 2계 주임▲補中庸부처 총무부 부교수 주임▲金鐘振=免총무부처 인사주임서리▲宋富子=免교부처 학적주임▲金丙洙=免 경영대학원 교학주임▲河正鉉=免교부처 학교교사교학주임서리 补 총무부처 인사주임서리▲李康賛=免 경상대 교학주임서리 补 총무부처 직무대리▲朴正佑=免교부처 학교주임서리▲申泰根=免교부처 학적과 补 경상대학 교학주임서리▲鄭景煥=免교부처 학생생활주임補中庸부부교수 주임 직무대리▲朴正佑=免교부처 교무주임서리 补 학생생활주임서리

移轉·開業

▲崔慶植 (56회·인천지부회장)=내달 1일 전기재료·자재 납품업인 「東賣 電氣」 개업

▲洪周述 (87일학) 南美英 (87농생)= 지난 11일 광고를 기획 제작, 인색, 외국어 번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차영기획」 설립 중 구 총무부 5가 19-7 (남경빌딩 601호) (267) 3254

出入國

▲宋錫球 (62철학·모교 총무처장) 등은 홍콩 中文大學에서 열린 제 9회 국제퇴계학회에 참석하고 1월 31일 귀국했다.

障礙者에 관심과 사랑을...

장애인 포교 나선 方貴姬동문



힐체어기 없으면 거동을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 고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方貴姬 (81불교) 동문.

지난 81년 포교 학우수여식에서 전체수석졸업의 영예

이 사람

다. 그리고 점자로 된 물결을 간행해 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이들에게 경을 보급할 것을 계획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농어자를 위한 수화포교와 수회합침단도 창단할 예정이라는 方동문은 이렇게 계획되고 해질 때 모든 일을 위해 청소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담당할 「자비행원회」와 이러한 일들을 제작으로 후원해줄 「보시행원회」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장애인 포교에 애점을 가

점자 佛經 간행 서두를 터

「고통과 번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佛法을 전할수 있는 중책을 내려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하는 方동문은 『우선 재활원을 찾아나니며 장애자를 위한 포교를 할 생각입니다.

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는 方동문은 『이제껏 다독이며 쌓아온 만드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도 함께 나누고, 아무쪼록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인다.

최고 년 13.29%의 수익률 보장!

C P 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화실한 투자. 성직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 - 4491
대 대 표 771 - 06



故鄉중의 故鄉, 나의 東國이여

정년퇴임교수와 함께

李箕永 교수

<불교대·인학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아 있는 데… 어느덧 시간이 무척 흘렀나 봅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일들을 마무리짓도록 애써보겠



자신의 능력개발에 전념하는 大學人돼야...

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로 퇴임소감을 대신하는 李箕永 교수. 『본교는 불교에 기반을 준 좋은 견학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게 아쉽다』는 李교수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출신한 장서 확보 및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교수와 신라문화연구소장들을 역임하기도 했던 李교수는 『현대서구의 가치관 후란에서 빛어진 도덕적 타리를 우리와 문화수용과정에서 여과해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세태를 안타깝게 여긴다』며 학생들이 『우리의 문화적 사상적 전통을 찾는 노력을 끊이 끊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퇴임후의 설계를 묻는 본기자에게 『새로 태어나는 침체고처로부터 시작한다는 기본으로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유

롭게 생활하겠다』는 李교수의 말에서 진리와 더불어 살아온 佛子로서의 높은 경지의 일면 까지도 엿볼수 있었다.

李丙疇 교수

<문과대·국문과>

『학문을 배우고 익혀 학생과 더불어 학문을 연구, 학사의 길에 몸담아 온 그 모든 날이母校와 함께였습니다. 실제로 자나깨나 동국 뿐이었지요』라고 지난날들을 회상하는 李丙疇 교수의 얼굴에는 정년퇴임이 무색하리만큼의 본校에 대한 강한 애착이 배어있었다.

난해한 杜詩연구를 평생 계

속해온다는 李교수는 『퇴임후에

도「杜甫와 蘇東坡」 「杜詩가미친 영향」 등을 재정리, 두시언해 현대여전집을 완성하기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5

백년전 두시언해에 머금기는 전

집을 만드는 것이 조그마한 욕심』이라고 학자로서의 꿈입없는 학문적 열의를 밝힌다.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먼저 주고자 하는 동동적 학구열의 학문구사가 바람직한 상』

이라며, 특히 우리자신의 뿌리



우리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

를 찾고자하는 의욕을 강조하는 李교수는 학교당국 및 학생들에게 『일류대학 어깨를 견누

고, 신흥의 발달한 기운이 넘치던 50년대 면학풍조가 재현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東國은 나의 학문적 산도이며, 나는 영원한 東國人』이라고 말을 맺는 李교수의 단언에서 진정 모교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金재남 교수

<문과대·영문과>

『소감이 어딨어, 무사히 마쳤으니 다행이지』

32년 8개월동안 봄담아 오던



제자도 친자식처럼 애정으로...

학교를 떠나는 金재남 교수의 첫마디는 정년퇴임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듯 했다.

평소 제자들에게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왔던 金교수는 1男4女의 자녀 자녀며 가족과 학문을 전공한 이유도 보다 직업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주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처음 강단에 섰을때는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들어서면서 제자도 친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길러야 한다는 교육관의 세워졌으며, 60대부터는 매 강의 때마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老教育者の 말에서 교육에 대한 정성이 얼마나 짜르렀는지를 느낀다.

등산과 고전음악감상이 취미인 金교수는 앞으로 연구업적이나 강의에 대한 부담없이 학문에만 전념, 英國에 가서 세익스피어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깊이하고 싶다고 퇴임후의 포부를 밝혔다.

權允赫 교수

<법정대·정외과>

『동국에 재직했던 26년의 세월을 되돌아볼때 여전히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읍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이 있지만 학문의 길은 넓고 인생은 너무나 짧은것 같읍니다. 퇴임후에도 물론 진리탐구의 생활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라며 지난날들을 회고하듯 지긋이 눈을 감는 權允赫 교수.

또한 정치 철학자답게 인류의 새로운 비전으로 「창조민주주의」를 제시했는데 이 창조민주주의란 현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인민 민주주의」 혹은 「민중 민주주의」 정치로 조화를 이루고 발전을 한해나야간다면 2천년은 첨단 시대와 더불어 인류 통일을 바라볼수도 있다

南都永 교수

<사법대·국사교육>

『정년퇴임은 어쩔수 없는 것이나 지난 40년간의 교육생활을 반성해 볼때 아쉬움 또한 많았습니다』 타미 대표소감을 피역하는 南都永 교수.

南교수는 지난 82년 총무처장을 거쳐 86년 2월 1일자로 경주캠퍼스 제 2 대부총장으로 부



깨어 있는 민족의 大學人으로 긍지 가져야....



학문의 길은 길고 인생은 너무짧아....

입 이번 정년퇴임까지 26년간을 고교에서 몸담아왔다.

慶州캠퍼스에 부임한이래 교육환경개선에 힘써온 南교수는 대학본연의 일무인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의 흐름으로서의 도서관육성사업에 최고역할을 두고 도서획득, 관리시설완비와 도서관내 기증강의실을 없애고 도서관전용화를 기합으로서 자율적인 학문분위기 조성에 힘써온 흔적이 역력하다.

『주전공인 馬政史에 관한 연구를 합체획득이다. 그리고 한국사원교육제도등 불교교육사에서도 관심을 가질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노안에선 아직도 젊은 듯지 않는 정열이 담겨있었다.

訊韓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成光大리점

업종: 자동차·화재·특종·장기·상해보험등
각종 보험업무취급

대표 姜鎮元(72 경영)
TEL : 736-5362; 5361

서울 중구 삼각동 115 경기 B/D 1302호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경외)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래문 - 독립문 중간)

信
函
一
山
金
屬
商
社
金
屬
工
芸
社
一
山
金
屬
商
社
金
屬
工
芸
社

信一金屬: 서울·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66-6662, 265-3258
275-5615

斗山金屬: 서울·中区 山林洞 152-2
電話 265-1516

信一工芸: 서울·中区 乙支路 3街 251-3
電話 265-1317

실내장식용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원)



회費...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

全가족동문

◇黃晨起
<43佛教·前牧교수
작고>

◇金貞愛

<59佛教>

◇아들셋 며느리 들

우리집은 東國뿐입니다

부자동문, 부부동문, 모녀동문
도 흔하지 않은 요즘, 가족은
물론 며느리까지 東國의 가족
인 통증이 있다.

金貞愛 (59·佛教 대승원주지,
本會理事) 동문가족이 화재의 주
인공으로 金동문집안은 모두
동국가족, 金동문의 남편은 모
교에서佛教學을 강의하시던
黃晨起 (43·佛教·前母校教授 作
故) 동문이며 딸마을 黃晨起
76년 모교 極教美術을 전공하
였으며 둘째아들도 모교 佛
教科를 졸업 大學院에 재학중이
며 딸아들이 활영君도 현재
母校에 在學中에 있다.

金동문 집은 아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동문으로 딸
며느리 呂元英氏도 75년 불교
과를 나왔으며 둘째며느리 심
은숙도 東國출신으로 金동문
의 직계가족은 東國으로 모였
을 뿐더러 며느리까지도 동문이
라 고끼리가족중의 가족중의 가
족인 金동문의 집을 방문하였
다.

발보다 귀한 며느리...

『며느리 같지 않고 친척 같아요
가족이 함께살다보면 고부지간
에 문제가(?) 있지만 마련인데 우
리집안은 그런것이 전혀없어요.
며느리아이 大學후배이다 보니
대학의 공통질도 많고해서 너
무나도 사랑스러워요』라고 며
느리 사람을 털어놓는 金동문은
『大學후배이다보니 며느리로

서 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후배로 생각하여 처리하고 후배로 생각해, 말하기 힘든 것은 며느리로 생각해 일처리를 하니까 서로 편해요』라고 밝히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문일 경우 이렇게 좋은지는 미처 몰랐다며 동문 며느리의 得을 피력한다.

막내만 유일한 타학문

金동문 가족은 金동문의 부군인 黃교수까지 모두 불교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모두 전공했는 데 유일하게 막내만이 政治外學문을 전공하고 있다.

『밖에 때문에 은근히 걱정됩니다. 집안이 모두 母校에서 佛

입할 때 東國을 태하지 않
을까 걱정이 되어 은근히 압
박(?) 을 넣어 전가족 동문
을 이루게 됐다고…』

현재 수원시 남창동 56-3

대승원에서 선기족이 함께 생
활하고 있는 金동문가족은 주
위에 소문난 繁榮은 시어머
니, 혼자, 혼자부식들….

『아침저녁 문안은 물론이고
이부자리까지 자식 며느리들이
뵈주고 있죠. 자식, 며느리 칭
찬하는 사람은 광활출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제가 보
아도 칭찬 받을 만큼 저한테
잘하니까요』

봉고차 대절해 동문회 참석

『전 가족이 동문이다 보니 동



▲ 金동문 (원내) 딸아들가족 (右), 둘째아들가족 (左).



교와 관련깊은 學門을 전공했
는데 막내만 政外학과를 선택하
다보니 집안에서 보기에는 학
문도 생소할 뿐더러 요즘 大
學街 바람도 그렇고 해서 은
근히 걱정이 됩니다』

『佛教學을 전공하고 부처님의
가호下에 생활하고 있다는 金
동문가족은 딸내의 가계학문에
대한 반란(?) 은 은근히 걱
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대견
해 하기도 한다.』

현재 딸내인 黃英琴은 과
서 입원을 달고 있으며 東國
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있
어 무엇보다도 대견하다고 밝
히는 金동문은 딸내가 大學에

문화회라면 아예 집을 닦고 집
안소풍을 가는 형편이지요. 또한
서울에서 東國사의 밤과 같은
행사가 있을때면 의식 봉고차
를 빌려가고 있지요』라고 밝히
며 전가족이 동문이나보니 웬
사람이 있을때면 온가족이 한
자리로 바빠 서로 쉽게 도와
준다며 전가족이 동문인 가족
에는 참가비와 졸 졸이는 특
혜조합증 만들라고 우스개 소
리를 한다.

수원의 대승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불교사상연구회 회장
직도 맡았고 불교포교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金동문은 불교
사상연구소는 밀아들(현재 軍

하다고 말한다.

손자들도 東國가족으로...

『아직 단은 세월이 날지하
였지만 지금 육심으로는 손자
들도 東國가족이 되었으면 합
니다. 아직 손자들이 어려서 회
방식으로 갖고는 있지만 악
내이를 때처럼 은근한 악력(?)
을 넣을 각오로 손자들을 보
고 있지요』라며 우리집은 3
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東國
의 물타리에서 부처님의 보살
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싶다고
하며 우리집은 동국과 함께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
겠다고 하며『우리집안에 大學
은 영원히 東國뿐입니다』라고
금동문은 활짝 웃는다.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이진우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
면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 신동기 (64 경영) = 서부경찰
서 대광과 경장, 은평구 녹번
11번지

▲ 양권식 (65 경영) = 한국전기
통신공사 계획국 장거리계측부
전송과장,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 김광 (64 경영) = 강남구 역
삼동 424-6 태신B/D 3층 고
려증권 영동지점 지점장

▲ 양문화 (67 경영) = 종구 수
하동 63번지, 청보식품 기획실
장 (757-0911)

▲ 김명호 (86 체조) = 광주시서
구 회화동 럭키 APT 5동 1006호

▲ 강민 (61 국문) = 마포구 풍
덕동 42-63

▲ 최양경 (85 수교) = 은평구대
저동 49-4 진암주택 101호

▲ 김강우 (52 경제) = 강남구 역
삼동 782-2

▲ 이승우 (56 국문) = 성동구성
수 2가 19-21

▲ 오세경 (73 행정) = 동대문구
용화동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 이필영 (71 사학) = 마포구하
수동 144-11

▲ 박재철 (61 경제) = 속초시청
호동 4595-122

▲ 정현수 (69 정의) = 종구 다
동 85호 럭키금성 다동빌딩 한
국법제련 판매과장

▲ 운태암 (85 산공) = 성북구장
위동 76 3 산업은행 강원동

합숙소

▲ 홍승돈 (58 학교) = 도봉구 쌍
문 1동 411-101

▲ 박병운 (59 법학) = 서울 종로
구 정부통합청사 (제 1상사) 문교
부 보통교육국 국장전화) 720-
3477

▲ 김홍주 (63 경영) = 동대문구
면목동 453-36

▲ 韓相哲 (72 경제) =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B/D 730호
대한화재 상보험

▲ 김규진 (67 사학) = 서울 종
구 구의원 1가 86-3

▲ 민광기 (84 경축) = 인천시
도화동 235번지 2동 3층

▲ 진집덕 (63 정치) = 강남구
반포 1동 31-1번지 반포미도
아파트 302동 502호

▲ 金義中 (52년 입학) = 강남
구 일원동 331

▲ 김현권 (71 경제) = 종로구
연지동 1-21 대한석유화학
공업협회 기획처장

▲ 엄승우 (72 도공) = 종로구인
사동 194-4 하나로빌딩 410號

▲ 이경훈 (52 경제) = 서대문구
남가좌동 244-46 경성비닐공업사
호동 4595-122

▲ 정대원 (교원) = 서울 강동
구 명일동 44 신동아 아파트 7
동 403號

▲ 박충렬 (74 건축) = 서울 동
작구 신대방동 377-1 대방빌딩
213호 건축사 사무소 정진



現代自動車(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가시

2,000CC
2,400CC
3,000CC판매과장: 柳在善
(70농경·ROTC 8기)TEL 274-3103-7
아간 914-6584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에 대한 모든 것

(783) 2707 · (782) 9721-2

- * 시내연수 - 3시간내 자신감부여
- * 렌트카 - 각종 차량 구비
- * 대리운전 - 24시간 대기
- * 보험 - 정비 - 기기임대



대우자동차(株)

'87 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윌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TEL. 544-1928 · 1128
(야간) 487-7559 판매대리: 崔鉉石 (74년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 절減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적용 차량

현대·대우 全 차종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オッソン企劃
1급 자동차 정비사업체

* 전화 상담 환영 *

635-3651~3

635-2828



代表 李鐘蘭

(경원 여학생회장·총무)

蜂針 으로 피운 同門援

蜂針연구가 金英圭동문을 찾아

쇄업 동문이 화제의 인물로 金
동문은 浪承萬 (60·국문 시인)
동문의 오랜 지병을 완치교자
동분서주하고 있어 찾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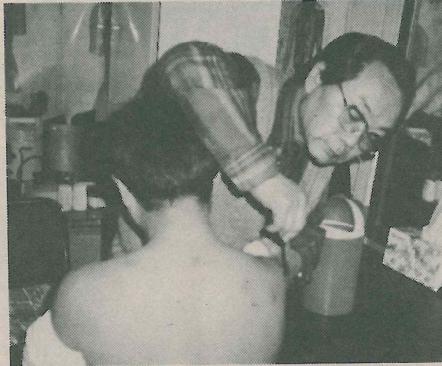
一杯學科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봉침(蜂針)을 시술하
게 되셨습니까?

『제가 대학 3학년 때 관절염
을 앓기 시작했고 그것이 심
해져서 4학년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생을 포기하다
시피 했죠. 그런데 봉침을 한
번 시술해보라는 소리를 듣고
시술을 받아보니 침침 치료가
되고 치료를 하는 동안 蜂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滅山선
사 高隱院씨에게 배우게 되었고
이렇게 한국봉침연구소라
는 기관까지 설립되었죠』

—浪承萬(60 국문·시인) 동



오래전부터 양봉업자를 사이
에서 민간요법으로 구전되어온
蜂針을 전통적으로 연구, 품이
불편한 門門들에게 무료로 치
료해 주는 동문이 있어 동문
를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母校 林學科 1期인 金英圭
(54세·한국봉침연구소소장, 인



▲봉침시술을 하고 있는 金동문

정학·신속안내…컴퓨터 도입

동문신상 컴퓨터로

본회 사무국이 지난 2월
7일 종로 성화빌딩으로 이
전화와 동시에 컴퓨터를 도
입, 7만 통국민을 위한 정
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
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
한 각계 동문들 컴퓨터에 상
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 본회
사무국 직원들은 기대에 부
응코자 부산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길남에 산다는 한 동문은
이전 직후 이전 축하전화도
중 컴퓨터가 그날 가설된다
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 자
신의 주소를 불러주며 입력
시킨 후 메일을 보내 달라
고 주문, 사무국 직원들을
접시 당황시키기도…

빠른 시일내 정확한 정보
를 입력 / 만족국민의 정감

다리가 될것을 여러 동문들

께 本 동동동자 약속드리오
니 아무쪼록 동문들께서도

변경된 사항을 본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東同國大同 동창회 움직임

여름이 전시되는 이번 동양
전시전시전은 동창회관관련기금
마련을 위한 제1회 홍보전으
로 전시와 함께 작품판매도
실시하는데…

알려진바에 따르면 목적이
홍보전인 만큼 전혀 상상도

못할 저렴한 가격(?)으로 판

매한다고 하오니 아무쪼록 동
문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하고 名畫도 얻을수
있는 一石二鳥의 절호의 기
회(?)이오니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관바랍니다.

부부가 나란히 박사
○…『성설향기/그러나 아
주 섭섭하지는 말고 조금만
섭섭하게…연鸯 만나려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려가는 바
람간』은 점거음과 갑동으로
기술벼쳤던 86학년도 모교학
위수여식장에 남다른 감격을
안은 풍문이 있어 화제.
다름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은
구수연교수와 한남대 박
요순교수부부가 주인공들.

국문화 중에서도 똑같이 고
전시가를 연구하는 頁수부
부는 「앞으로 충남의 국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모조록 두 박사님을 비롯
한 동국에서의 위대한 탄생
을 한 주역들이 뜨거운 밝은 앞날을 기
원합니다요.

名畫도 얻고 愛校도 하고

남성복전문점

JM 미네소타
MINNESOTA

- 신사복·콤비·Y셔츠
- 단체복·주문복 일체
- 넥타이·밸트·지갑등
액세서리

전화주문환영
TEL: 275-4564

대표朴順吉 (74국문)
서울·종구 물지로 3가
(지하상가 3-17호)

신용·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화사육 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종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화·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종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진양빌딩 3층 42호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TEL : 779-3360
서울·종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三正

堂

三正

니다. 또한 주위에서 쓰레기로
는 치료라고 말을 하나 높니다.
원래 봉침이라는 것이 민
간오변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희
박한 것도浪시인이 치료를 주
줄거리게 하는 것 같읍니다.』

—앞으로 봉동문의 치료를 계
속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나는浪시인을 포
기하지 않았습니다.浪시인이 치
료에 따르는 고통을 참아주며
치료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美
아가 치료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이동문께선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하더네요.

『벌을 제가 키워서 하는 것이
기애 특별히 치료비를 받고 있
지는 않읍니다. 알아서 주시면
받고 어려우면 안받고 그렇읍
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준봉침
인데 이것을 잠자속으로 이용할

母校출신 환자 언제든지 대환영

“浪시인 완치에 계속 진력 할터.”

문을 어떻게 알고 치료하게 되
있습니까?

『TV에서浪시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지요. 화면을 통해
환자를 보니 고칠 수 있다는 지
신감이 들었는데浪시인이 동
문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적
극적으로 나오셨지요. 동창회에서
浪시인의 주소를 알아서 집으
로가 지금 3단계까지 치료를
했죠.』

—봉동문의 호흡은 어떠하고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는
지요?

『浪시인한테 처음 았을 때浪
시인이 그러더군요. 부처님이^{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기본마음
으로 치료에 임했지요. 그런데
원래 봉침이라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따르지요. 그래서 그런
지浪시인이 3번 치료받은
현재 조금 치료에 주출하는 상
태이지요.』

—병세의 호전가능성은 있는
지요?

『자신있읍니다. 정상인처럼
될 수는 없을 지언정 일상생
활하는데 지장 없게 할 수 있읍
니다. 치료과정의 고통만 참아
준다면浪시인의 행동에 지장
없게 할 자신있읍니다.』

현재 애 치료가 중단된 산
태인지요?

『말씀드렸지만 봉침이라는 것
이 벌침을쏘아서 치료하는 것이
니 상당한고통이 따르지요. 그려
다보니浪시인이 고통을 참기 어
려워 주출하는 것이라 생각됨

상각은 전제없읍니다.』

—봉동문중 몇이 불편한 분
이 있을 경우 금동문은 어떻게
해실련…

『봉동문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
서야지요. 현재 알리지지 않아
서를 찾지않을 뿐더러 과학적
근거가 적다는 이유로 찾
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그리고 난명통지는
되지 않지만 현재의 화제가 고칠수
없는 드는 별이 고쳐지고 있
읍니다. 아무쪼록 봉동문 아픈
분이 계시면 꼭연락해주세요.』

봉동문이면 최우선으로 보이주
겠는 금동문은 시술시 따르
는 고통만 이겨주고 자신만
믿고 시술을 받는다면 디스
크, 풍종, 신경마비등 성인병
을, 증세에 보이어서 고칠 자신
이며 있다 활짝 웃는다.

新刊안내

「마음의 철학」

李承永 著

KBS 청소년 철학강좌 프
로그램인 「마음의 철학」을 母
校 교수인 이기영교수에 의해 책
으로 엮여져 간행되었는데 블
교에 대한 철학 및 전반적인 사
항들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풀
이되어 있다. <正宇社·1백68
쪽·2300원>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노스웨스트 오리엔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아시는분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로 가십니까? 일주일 중 어느날이라도 노스엔젤레스행 항공편이 있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는 지난 39년간 한국과 미국간을 계속해서 운항해 온 항공사로서 매일 노스엔젤레스로 향하는 항공편을 비롯하여 씨애틀행 논스톱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모셔드리며 도착 즉시 링대한 국내선 연결망을 통해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미국의 주요도시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일등석과 억제큐티브 클래스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리갈 임페리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전화주십시오.

5:10pm	씨애틀(착 9:50am)
4:30pm	로스엔젤레스(착 10:05am)
1:45pm	시카고(착 12:15pm)*
12:50pm	뉴욕(착 3:20pm)
동	샌프란시스코(착 12:40pm)
경	호놀룰루(착 8:55am)

* 1986년 4월 운항제개



People who know...go
NORTHWEST ORIENT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조선호텔 753-6106/9, 755-0416/7, 777-9786 ● 롯데호텔
778-8240/1 ● 힐튼호텔 752-2394/5 ● 소공사무실 778-0181/7 ● 만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東國大學校 同窓會 入住를 축하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종로 오피스타운에 자신있게 내놓는 애브뉴빌딩!

'86, '88 관광코스로 지정받았습니다.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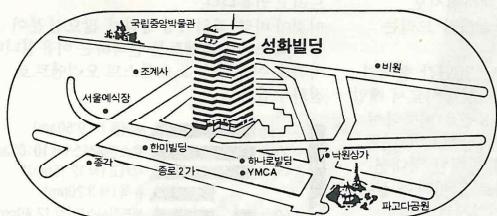
최고의 공간을 최고의 기능으로 조화시켰습니다.

최선의 관리와 최선의 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명물거리로 등장한 종로 애브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에서
우리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엮어나갈
종로 애브뉴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찾습니다.
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적은 성화빌딩 분양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분양회원 모집중
734-0051-5



成和實業株式會社
大京產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번지

TEL. 734-0051~9
736-7447

대표이사 崔 詹 植 (經院 1期)
전무이사 李 知 映 (68 商科·經院 1期)